
총여실 공간문제에 대한 접근. 이렇게 합니다!

1. 감정의 거품을 뺀다!

저도 여러번 겪었지만, 통성기도나 찬송가 소리, 권위적인 금연명령(거의 명령수준 맞음), 집 주인이 셋방살이하는 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 일반 등등이 분명 상식 이하이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의 누적이 쌓기 마련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쯤 돌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정치적 공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에서 여태 '버티고'있다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싸우는 가운데 말해지는 모든 것들 역시 너무나 정치적인 담론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자 하는지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찰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은 '감정'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비판을 우리에게로 되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쟁'이어야 한다는 엄신기호님의 충고에서도 드러났던 바입니다.

2. 일단 지금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여성창조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일 때,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1대 총여 집행부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 두입술, 생도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도 공간이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학내 여성운동단체 (총여 포함)에 주어진 공간은
 - 총여학생회실과 이과대 여학생회실 뿐이다.
- (구상대에 생길지도 모르는 동쪽방은 불확실하므로 제외)

우리는 이 상황을

"필요는 너무나 많은데, 공간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

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의 상황은

첫째, 10대 관련자와 11대 총여 집행부 사이의 세력다툼도 아니고,

둘째, 10대가 '소유'했던 공간을 11대 총여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두입술/생도의 독립성을 근거로 방을 내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스스로가 총여실을 총여 집행부들의 '독점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들과 여학우들이 나누어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고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필요는 많고 공간은 부족하다면? 해결책은 두 가지 뿐입니다.

- (1) 11대 총여 집행부가 주장하듯 집행부만 남고 모두 나가는 것과,
- (2) 우리가 주장하듯 합의를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현재 두입술방의 향방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엣혀살게 해주마"라는 집주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11대 총여 집행부, 그들의 정치에 대항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치, 즉 우리의 '상식'에 기반하여 총여실이라는 공간에서의 "공존"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지금 '방 한칸'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두입술 방을 내놓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실리(?)를 놓쳐도 멋있는 말만 읊고 있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 자체가 우리의 정치적 명분과 구체적 실리를 정확히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동안 두입술이 11대 총여 집행부와 협상해왔던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이제까지 써 왔으니까' 라는 관행,

'두입술은 10대 총여에 대해 독립적이었으니까'라는 독립성 주장,

'두입술은 컴퓨터와 책장 등 안정적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특수성 주장

그 어느것도 11대 총여 집행부에게는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어떠한 '편법' (?) 으로도 방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발상을 달리 하고 정공법으로 나가자.

4. 총여실은 누구에 의해서든 '소유'되거나 '독점'될 수 없으며,

우리들 - 총여 집행부, 자치단체 구성원, 연세 여학우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공간, 즉 "필요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공간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이렇게 많은, 명백히 실재하는 필요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즉, 총여실에 대한 필요들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하도록 합시다. 다들 알겠지만, 이것은 "361-3645를 아십니까" 라고 들 먹이며 5천 여학우의 이름을 거론하다가도 총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총여실을 집행부가 독점사용해야 한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여성창조의 모순된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성창조는 "왜 총여실 안에서만 복작거려야 하는가, 밖으로 뺀어 나가서 다른 공간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자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무슨 이름이라도 안 걸면 협상 주체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시일(그래봤자 한 학기 이상이겠죠) 내에 '새로운 공간'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이 "일단 나가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같이 싸워 주겠다'는 등, '자치단체들을 돕겠다'는 등 하는 말들이한날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선 추방, 후 협조> 라는 발상은 지독히도 권위주의적이고 또한 더럽게 자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5. 11대 총여 집행부가 아니라, 모든 연세인들을 설득합시다!

11대 총여 집행부와 한번이라도 대화해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상식'에는 '우리의 상식'이 먹히지 않으며 또한 입장의 일관성을 갖추다던가, 토론할 자세라던가 등등의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고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밀실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방 하나 지키려는게 아니라면 논쟁을 공론화 하고, 공개적인 전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가부장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의 상황 역시 여성창조를 설득하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 아닐겁니다.

운동이라는게 뭘니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아닐까요?

방 한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간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정치적 입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의 장(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질서에 대한 우리의 꿈이 몽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선거판을 위해 쉽게 내뱉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이고,

정치는 선거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속되는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과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줍시다!

6. 이렇게 행동합시다!

- 가능하면 집단 행동, 조직화된 행동을 보입시다.
그러나 혼자라도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정치에 따라 행동합시다.
- "총여실은 내 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합시다.
- 모든 자치단체 모임은 총여실에서 합시다.
불편해서 안가면, 앞으로도 영영 총여실은 '그들만의 것'이 됩니다.
- 전화를 바꿔주지 않거나 내용을 검열하면 무조건 항의합시다.
전화는 공동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며,
전화세 역시 우리들의 등록금에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 흡연도 금연도,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비흡연자가 있어 불편하다면 상호 양해와 배려가 있을수 있겠지만
"내 땅이니까 내 법에 따르라"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를 용납하지는 맙시다.
- 11대 총여 집행부 행하는 '정치적 망언(!)'을 들었을 때는
뒤다마 까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여 통신에 올립시다.
화려한 수사에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정치적 보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증거들이 되어
줄 것입니다.

방을 내주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소유'라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분노합시다.

방을 지키는 것 보다,

우리의 정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